KCCI 브리프_ESG_제35호

KCCI ESG NEWSLETTER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MAR. 2024

전문가 기고
ESG 시대,
기업들의 달라진 해법 찾기

ESG 주요 현안
ESG 데이터 디지털화와 통합관리

국내외 주요 ESG 뉴스

ESG 주요 통계
ESG 금융
ESG 평가
기타 통계

대한상공회의소

전문가 기고

ESG 시대, 기업들의 달라진 해법 찾기

김우섭

한국경제신문 기자

> "변화의 물결 속에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성공적 '변신'을 이뤄낼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현대제철은 최근 탈(脫)탄소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 조직으로 운영한 '그린스틸 태스크포스팀(TF)'을 최근 '그린스틸실'로 격상했다. 이 부서에서 다루는 핵심 안건 중 하나는 바로 미국에 전기로 공장을 짓는 것이다. 탄소 배출량이 고로(용광로)의 20%에 불과한 전기로를 지으면 탄소세(稅)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환경 사회적책임 지배구조) 규칙 준수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회사의 경영 방식도 변하고 있다. 그동안 수익이 나지 않아 검토조차 되지 않았던 사안들이 ESG란 이름 하에 재검토되고 실행에 옮겨지는 일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현대제철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국은 전기료와 땅값, 인건비가 비싸 전기로 공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철강 업계는 판단해왔다. 실제 국내 철강 회사 중 미국에 고로나 전기로를 세운 곳이 없는 이유다. 차라리 한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게 더 저렴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 등에 탄소세를 부과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올해부터는 철강 등 12개 수입 제품에 온실가스 배출 1t당 55달러의 세금을 매기기로 하고, 현재 세부안을 가다듬고 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기업에는 이만한 부담이 또 없다. 2022년 기준 국내 철강업체들이 쏟아낸 온실가스는 약 1억t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15%를 차지할 정도다.

그렇게 결정한 대안이 바로 전기로 건설이다. 전기로는 고철을 녹이는 방식이라 철광석·유연탄을 활용하는 고로보다 탄소 배출량이 80% 적다.

일본 기업의 상황도 비슷하다. 탄소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선 웃돈을 더 주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세계 4위 철강사 일본제철이 작년 12월 141억달러(약 18조3000억원)를 들여 미국 3대 철강사 US스틸을 인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쟁 업체보다 두 배나 인수 금액을 더 불렀다.

ESG 압박으로 경영 방식이 바뀌는 건 철강 회사만이 아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압박을 받는다. 애플, TSMC, ASML 등 글로벌 테크기업들이 강화된 ESG 규칙을 요구하는 게 대표적이다.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 장비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제조사인 ASML은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을 콕 집어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비교하는 보고서를 내고 있다. ASML은 연례 보고서에 "2040년까지 고객사들의 탄소중립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ASML은 지난해 공개한 2022년 보고서에선 좀더 노골적으로 진화했다.

"네덜란드와 미국에선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달성했지만 대만과 한국 반도체 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보고서는 TSMC 등 대만 기업에선 진전했다고 명시하고 한국에 대해선 아직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에 신재생에너지 활용률을 높일 것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애플도 마찬가지다. 2020년에 "10년 내로 제품 공급망 전반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75% 줄이고, 혁신적인 탄소 제거 솔루션을 개발해 나

전문가 기고

ESG 시대, 기업들의 달라진 해법 찾기

머지 25%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2021년엔 “기업들의 스코프3 배출량 공시 의무화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애플의 아이폰 등에 패널을 공급하는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기업들도 ‘스코프3 규율’의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스코프3는 해외 법인 등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가장 강력한 탄소 관리에 해당한다.

국내 기업들은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 거래처에 제출하기 위해 어떤 ESG 데이터를 모아야 할지, 기업의 손익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계량화할지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도 없다.

그럼에도 ESG가 기업의 경영 방식을 통째로 바꾸고 있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이미 각국 정부는 돈이 들더라도 자연과 사회에 보다 이로운 효용을 제공하고 이전과 다른 관점의 혁신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체질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내지 못한 기업은 앞으로 더욱 거센 생존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변화의 물결 속에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성공적 ‘변신’을 이뤄낼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ESG 주요 현안

ESG 데이터 디지털화와 통합관리

> “이제 많은 기업들이 ESG 데이터를 재무 데이터와 동일한 깊이로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ESG는 이제 기업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ESG는 단순히 착한 기업이라는 홍보 수단도 아니고 겉모양만 포장하면 되는 껍데기도 아닌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변화의 저변에는 기업 ESG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기후 리스크에 대한 글로벌 위기의식, 기업 변화의 절박성, 법적 규제가 따르기 때문일 것이다. 즉 기업경영을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ESG경영의 핵심, ESG 데이터 관리

기업의 ESG 담당자가 경험하는 ESG경영의 가장 어려운 점은 데이터 관리라고 한다. 사실 ESG경영(환경경영, 인권 및 안전보건, 윤리 및 거버넌스)의 핵심은 정책수립과, 실행(Performance) , 데이터 관리에 있다. 그 중에서도 기업 ESG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 있는 ESG 데이터 관리이다.

ESG 데이터 디지털화와 통합관리는 IT 기술이 접목되어야 한다. ESG 자료는 조직 경계를 설정하고 ESG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새로운 과제를 도출하거나 기업의 부정적 환경 Impact를 감소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식별하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하고 성과를 창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웬만한 대기업이 아니면 이러한 IT 기술이 수반되는 ESG 데이터 관리는 초기비용부터 관리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ESG 데이터 디지털화와 통합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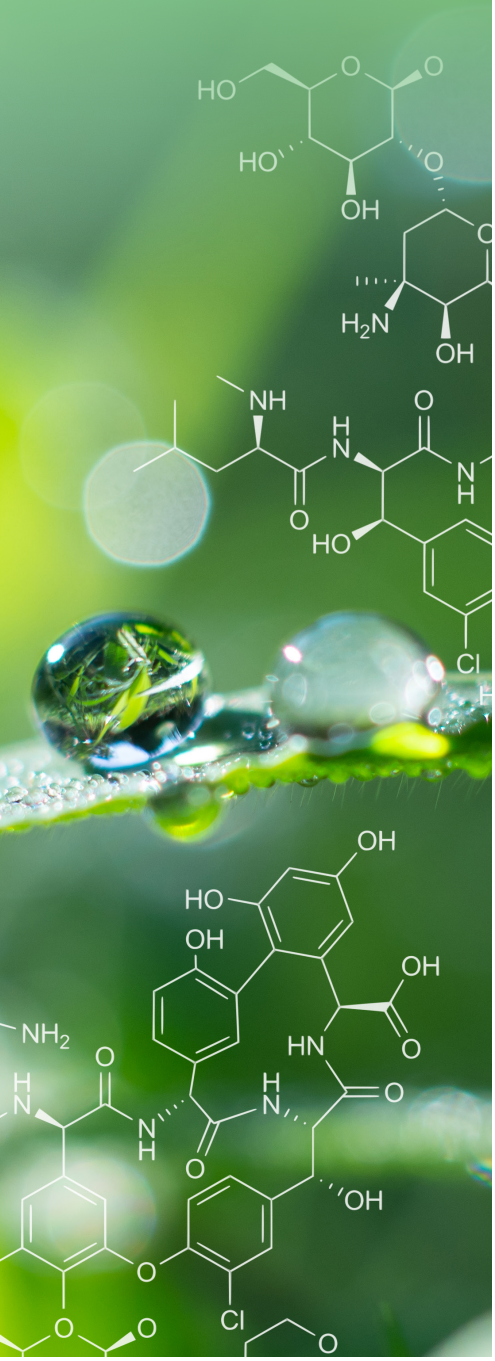
ESG 데이터 디지털화와 통합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효율성이다. 기업의 복잡한 ESG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IT 기반의 통합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국내외 ESG 이슈들이 실시간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둘째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이다. 실시간으로 기업의 ESG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기업의 공시를 위한 ESG 데이터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수집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ESG 데이터를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ESG 주요 현안

ESG 데이터 디지털화와 데이터 통합관리



셋째는 법규 준수이다. ESG 공시가 의무화되면 데이터 오류로 인한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 데이터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ESG 글로벌 규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ESG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업의 대응

기업은 글로벌 3대 지속가능성공시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미국 SEC 기후공시 기준, ISSB S2 기후공시,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와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공시 표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및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데이터 관리를 해야 한다. IT 기반의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ESG 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소 중견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시급한 지원 필요

ESG 디지털 전환은 준비된 자들에게는 기회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약자들에게는 위험이기도 한다. 대기업들은 신속히 자체 IT 기반 기술로 스스로 ESG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반면에 중소, 중견기업이나 벤처기업, ESG 스타트업들은 재원이 부족하고 ESG 인프라가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시급히 도와야 한다. “ESG 데이터 통합관리 포털”을 구축하여 KSSB 표준에 따른 데이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속히 나서야 한다. 정부에서는 이미 지난 2022년 이에 대한 통합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업무 논의에서 정책은 수립하였던 사안이었다. 빠른 대응을 기대해 본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ESG 데이터를 비재무정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재무 데이터와 동일한 세분성, 깊이 및 엄격성으로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ESG 데이터의 효과적인 가용성, 제어, 관리 및 분석이 조직의 성공에 가장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외 주요 ESG 뉴스

지속가능경영원

E 환경

서울시 온실가스 총량제 적용 확대
매일경제 | 2024.02.15. https://www.mk.co.kr/news/society/10943618

빅테크에 칼 빼든 EU... 애플에 7200억원 과징금 이어 틱톡도 조사
중앙일보 | 2024.02.2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9745#home

전 세계 MZ세대의 59%, 기후변화로 인한 불안 느껴
임팩트온 | 2024.02.20.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13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로 사회적 가치 만든다… 환경부-SK 맞손
뉴스1 | 2024.02.27. https://www.news1.kr/articles/?5332644

EU 생태계 파괴 엄벌... 환경범죄지침 개정안 유럽의회 통과
ESG경제 | 2024.03.04.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980

싱가포르, 대기업 기후공시 비용 30% 지원한다... 2027년 비상장 기업도 기후공시 의무화
임팩트온 | 2024.03.05.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06

인도중앙은행, 금융기관 기후공시 의무화 발표
ESG경제 | 2024.03.05.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986

자원순환에 진심인 패션 기업... 친환경 상품 매출 3배 '껑충'
한경ESG | 2024.03.0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223079i

환경부, 택배 과대포장 단속 2년 유예
그리니엄 | 2024.03.12. https://greenium.kr/news-articleview-circulareconomy-policy-packaging-overpackage-regulation-put-off/

美 에너지부, 탄소제거 구매 증진 위한 챌린지 공개 예정 "구글, 3500만 달러 구매 약속"
그리니엄 | 2024.03.18. https://greenium.kr/news-articleview-carbon-policy-carbon-removal-voluntary-carbon-dioxide-removal-purchase-challenge/

미 대선 앞두고 흔들리는 스코프3 배출량 의무 공시
내일신문 | 2024.02.28. https://m.naeil.com/news/read/502751

S 사회

기업 '재무 성과' 올리고 싶다면, 다양성 정책에 주목!
ESG경제 | 2024.02.23.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898

美 뉴욕시, 2040년까지 녹색일자리 3배 늘린다...녹색경제 실행계획 발표
임팩트온 | 2024.03.06.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19

세계은행, "성별격차 해소하면 전세계 GDP 20% 성장가능"
ESG경제 | 2024.03.06.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002

포스코그룹, 대학생 ESG 교육 확대
한경ESG | 2024.03.0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0621161

EU 이사회·유럽의회 강제노동금지 규제 잠정 합의... 상품 폐기는 제한적으로
ESG경제 | 2024.03.06.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009

[ESG경영 사례분석] 하나금융이 '저출산 해결'에 가장 적극적인 이유는?
뉴스투데이 | 2024.03.16.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40313500160

EU 27개국, 공급망실사법 가까스로 승인... 적용기준은 대폭 완화
한국경제 | 2024.03.1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164334Y

G 지배구조

대신경제연구소, 이사회 운영평가 고도화 서비스 실시
연합뉴스 | 2024.02.22. https://m.yna.co.kr/view/AKR20240222088500008

금융지주 이사회 지각변동... 사외이사 늘고 女비중 높아진다
한국경제 | 2024.03.0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032748Y

본격 '사외이사' 시대... 국내 50대 그룹서 1000명 돌파
매일경제 | 2024.03.20. https://www.mk.co.kr/news/business/10969610i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원년 될까... 2024 주총 관전 포인트
한경ESG | 2024.03.0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269285i

통신 3사 주총 키워드는 '리스크 관리 강화' '주주 친화 정책'
아이뉴스24 | 2024.03.09. https://www.inews24.com/view/1695389

서울시, 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SG경제 | 2024.03.15.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116

ESG 통계 지표

2024년 2월 기준

1. ESG 금융

(1) 국내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 종목 수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단위 : 개)

구분	'23.7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4.1	2월
녹색채권	247	249	257	268	276	278	279	280
사회적채권	1,281	1,314	1,371	1,394	1,440	1,463	1,474	1,502
지속가능채권	292	287	294	289	280	290	285	275

(2) 국내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 잔액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단위 : 천억 원)

구분	'23.7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4.1	2월
녹색채권	241	241	249	251	254	256	255	266
사회적채권	1,803	1,849	1,898	1,928	1,971	1,994	1,999	2,023
지속가능채권	216	209	212	207	201	203	199	186

자료: KRX 사회책임투자채권-통계-상장현황

2. ESG 평가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24.2.29)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8	14	20	38	78	131	162

(2)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

('24.2.29)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지배구조보고서	76	101	213	224	231	355	380	37

자료: KRX ESG 포털

3. 기타 통계

RE100 참여 국내외 기업(기관) 수

* CF100 참여 기업 수: 148개 ('24.2)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내	-	-	-	6	14	27	36	36
글로벌	101	141	204	269	335	393	426	428

자료: https://www.there100.org/re100-members, https://24-7cfe.com/

ESG NEWSLETTER

2024년 ESG 뉴스레터 발간 주제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1월	COP28 주요 결과와 시사점
2월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주요내용과 활용
3월	**ESG 데이터 디지털화와 통합관리**
4월	미 SEC 기후 공시 규칙안과 영향 분석
5월	국내기업의 ESG위원회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6월	글로벌 인적 자본 공시 현황과 대응방안
7월	EU 공급망 실사 지침 (CSDDD) 최종안
8월	S분야 현안, 다양성.형평성.포용성 (DEI)
9월	KSSB 국내 ESG 공시제도 최종안
10월	EU 순환경제 법안 동향과 대응전략
11월	해외탄소배출량 측정 현황과 과제
12월	글로벌 기업의 ESG 연결 공시 우수사례

담당자 및 문의처

*지속가능경영원

권우혁 연구원 | E. whk@korcham.net
김예원 연구원 | E. kyw1208@korcham.net